

# 전남도, 봄철 농번기 인력수급 유기적 대응

### 47만6천여 명 필요 인력...시군·유관기관과 상황실 운영 농작업반 확대·외국근로자 행정지원·군 장병 등 확보나서

전남도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세워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 수확, 고추·고구마 정식, 배 수분·적과 등 5개 작물 관련 작업이다. 이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1만 8천220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47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 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살피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 인력공급의 중심축에 있는 34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기능도 강화한다. 주요 농작업반을 250팀 3천 명으로 확대해 인력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촌일자리 앞선·중개와 농작업자 현장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인접 시군 간 농작업반을 작업 시기별로 교류 투입해 중개 범위를 확대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뤄지는 무료 중개,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이 억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완화에 따라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대거 입국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인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말 14개 시군 총 433농어가에 지난해(343명)보다 3.6배 많은 1천23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고흥 32명(필리핀)의 입국을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근로할 250여 명(3개국)이 시군의 행정지원을 받아 입국 준비를 하고 있다. 군부대도 올해 인력지원을 위한 준비태세에 일찍 돌입했다. 도는 4월 초 31사단, 3함대 등 군부대와 '농촌인력지원 관·군 업무협약'을 해 농가에 최대 1만 명의 군장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건립 공약 반영 촉구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이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 광주 복구, 청년 어학 한국사시험 응시료 지원 만19~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광주 복구는 청년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어학·한국사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복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인 미취업 청년이다. 접수 순서대로 200여 명까지 지원한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한국사능력시험 등 6종 시험 응시료를 살비 지급한다. 청년 1명이 1년에 2차례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복구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응시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또는 복구청년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복구는 민선 7기 들어 복구청년센터 '청춘이랑'을 개관하고 소셜다이닝, AI·VR 면접 체험,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등 청년 일상과 구직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 “반갑다 원앙아” 되살아 난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

### 수해 복원사업 마무리...샬·너구리 등 서식 확인



최근 무등산 평두메습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 (사진 제공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에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과 청둥오리가 되돌아왔다. 개월여에 걸쳐 화양동 일원 평두메습지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마무리 7개월여 만인 최근 평두메습지에 원앙과 청둥오리가 찾아들었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 권역 내 대표적 목

논습지로 큰산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의 집단 번식장소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담비·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었지만 2020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물길 세굴·토사유입 등이 발생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크게 훼손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복원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복원사업의 효과성을 관찰하기 위해 무인센서카메라 5대를 설치, 7개월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샬을 포함해 너구리·청둥오리·원앙·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최관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평두메습지 복원사업 뒤 떠났던 천연기념물·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리턴매치’ 이용섭·강기정, TV토론 놓고 회피 신경전

6·1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간 리턴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예비후보가 TV토론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 강추캠프 경선선거대책본부는 4일 “최근 모 방송사 2곳이 강기정·이용섭 두 예비후보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면서 “강 예비후보가 ‘언제든 준비가 됐다.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예비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 양자 TV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추캠프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TV토론을 통해 광주 비전을 만나고 싶어한다”면서 “당당하고 빠르게 TV토론을 통해 시민과 소통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방송사의 토론 참석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뒤늦게 출마선언했고 경선일정 등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권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참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윤영민 화순군수 예비후보, 오는 9일 선거사무실 개소식 ‘명품힐링도시 화순’ 청사진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영민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지역민들과 민주당원들을 초청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 윤영민 예비후보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화순읍 우체국사거리 E안경) 개소식을 갖고, ‘명품 힐링도시 화순’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순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윤 예비후보 캠프 측은 △산업·경제 △실력 화순을 위한 교육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화순형 복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적재적소에 군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체육 지원 △농촌과 농민의 권익이 최우선 시되는 농축산·임업 △의료·휴양 △창조경제 등 8개 분야 정책을 공약해설사를 통해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윤영민 화순군수 예비후보는 “화순군민들은 유능한 군수와 함께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화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식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화순 발전을 위해 달려온 윤영민의 철학과 정책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화순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사로 자리매김한 윤영민이 ‘창조형 군수’, ‘깨끗한 군수’로 화순의 영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연도	급여비	비율
2016년	240,833원	1.1배
2017년	125,531원	1.7배
2018년	79,147원	2.1배
2019년	48,103원	2.7배
2021년	26,697원	5.3배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